

전남도립국악단 '그린 국악-시즌1'



전남도립국악단 정기공연 '아버지가 집에 와 계신 날 같은, 국악'.

<전남도립국악단 제공>

광주일보 문화예술 매거진 2월호



'외국인 5% 다문화 동반 시대' '남도 유람' 나주로 시간여행

"전통 가무악희 통해 환경위기 성찰"

산조 합주·이면가락 연창 판소리 3·1절 기념 '기미독립, 가무악희' 타악 앙상블·판소리 합창 등 다채



지난해 그린국악 미디어아트 '푸른그레' 공연 장면.

독일 예술가 앨런 손피스트의 '자연경관과 함께 일하기'는 빈 전시장에 검은 사목(死木) 여러 개를 빙 둘러놓은 것이 전부다. 죽은 나무들은 관람객을 향해 가지를 뻗고, 환경파괴에 몰지각했음을 질타하는 듯 하다. 이같은 생태 예술은 1960년대 독일 예술가들이 주축이 돼 창작해 왔지만 인류세의 전 지구적 위기와 맞물려 회화, 비디오 아트 그리고 음악까지 장르를 확장하고 있다.

리 소리 톨아보기', '전래동요 부르고 배우고 익히기', '북과 북의 연대 울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관객들을 찾아간다. 3월 2일 공연은 3·1절과 맞물려 '기미독립, 가무악희'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타악 앙상블 '타인공감', 신민요 '우리가 원하는 우리나라', '눈물꽃' 등 독립군들의 아픔을 가무악희로 풀어낸다는 계획. 9일 무대에 오르는 '방아타령'은 가야금병창 3중주 버전으로 감상할 수 있다. 한편 UN이 선포한 세계 물의 날(3월 23일)을 맞아 '물아, 간밤에 잘 잤느냐'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무료 공연도 이목을 끈다. 판소리 합창곡으로 감상하는 '범피중류'부터 국악 관현악 합창 '물 흐르는 내력', 설장구 협주 '마침내 바다' 등은 모두 물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다. 다큐멘터리 '물아, 간밤에 잘 잤느냐'와 부채춤 '연못 위를 떠다니는 춤' 등도 울려 퍼질 예정이다. 끝으로 30일에는 '오래 들어서 사랑스럽고, 가까이 봐야 어여쁜 가무악희'라는 주제로 진유류립 입춤소고 '행화지무', 가면가락 판소리 '심방사 눈뜨는 대목'이 무대에 오른다.

류형선 예술감독은 "전통예술을 매개로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다함께 생각해보는 공연을 준비했다"며 "공연의 의미가 관람객들에게 잘 전달돼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관람료 1만 원. 3월 2일, 23일은 무료 공연.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대한민국은 올해 '다문화·다인종 국가'에 진입한다. 국내 외국인 비중이 전체 인구의 5%를 넘어선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 '다인종·다문화 국가'에 진입하게 될 전망이다. 국민들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정부의 정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광주일보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2월호는 특집 '외국인 5% 다문화 동반 시대'를 준비했다.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모여 사는 광주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과 세계음식문화거리 둘러보고 한국-베트남 부부의 다문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본다. 아시아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리틀 아시아' 국립아시아 문화전당(ACC)의 다양한 공간들도 소개한다. 이달에 만나보는 예향 초대석 주인공은 '섬박사' 김준(전남대 호남학연구원 학술연구) 교수다. 김 교수는 30년 동안 갯벌과 섬, 어촌을 찾아다니고 있으며 슬로푸드와 바다 먹거리 운동인 '슬로피시 운동'본부장을 맡고 있다. 최근 섬 인문학을 바다 맛으로 풀어보고자 한 '섬살이, 섬밥상'을 펴낸 김준 박사에게 지속가능한 어촌어업에 대해 물었다. '문화를 품은 건축물'은 역사동 시대를 접고 최근 마곡지구에 세 등지를 틈 'LG아트센터 서울'로 안내한다. 20여 년간 '초대권 없는 공연장'으로 명성을 쌓았던 LG아트센터는 일본 출신의 세계적인 거장 안도 다다오에게 설계를 의뢰해 또 하나의 명품 공연장을 탄생시켰다. '튜브', '스텝 아트

리움', '게이트 아크'(Gate Arc)라는 독특한 콘셉트를 내건 LG아트센터 서울은 건축투어에만 10만여 명이 다녀가는 명소로 떠올랐다. 신춘문에 당선자들과의 인터뷰도 읽을거리다. 새해가 되면 문학출판계에 가장 관심있는 소식은 '신춘문에'다. 주요 일간지 신년호에 부문별 당선작이 발표되면 문학청년을 비롯해 문화애호가, 독자들의 시선이 쏠린다. 2024년 광주일보 신춘문에 당선된 유재연(소설), 엄지인(시), 정화영(동화) 세 명의 신인들을 만나 당선소감과 함께 쉽지 않았을 문학의 길을 걸어온 과정을 들어본다. '맛과 멋 함께, 남도 유람'은 나주유성권과 영산포 근대문화권, 반남고분군 등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천년목사고을' 나주로 2천년 시간여행을 떠난다. 나주의 진산(鎭山)인 금성산 정상부가 57년만에 상시 개방됐다. 금성관과 목사내야(금학현), 서성문을 거닐며 나주의 역사를 만난다. 도시재생 문화공간인 '나주정미소'(情味笑)도 나주여행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나주배 가공식품과 전통떡갈리를 맛보는 시간도 즐거움을 더한다. 이외에 '예향 창간 40주년과 함께하는 남도투어' 추억과 온정이 수북한 전남의 전통시장, 신안 암태도·자은도의 개성 넘치는 문화공간들, '호남의 누정' 문인들의 교류 공간 광주 양파정, 17호재 광주 영화소식을 전해오고 있는 영화잡지 '신1980' 김수진 편집장과의 인터뷰도 만나볼 수 있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상처의 달, 치유의 달' 예술에 투영

25일까지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김두석·김재희·하지혜·한서형 기획전

자본주의사회의 지나친 경쟁은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남긴다. 효율과 성과 이면에는 패배와 낙오라는 부정적인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마련이다. 예술을 통해 치유를 모색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는 건 그 때문이다. 특히 그림이 주는 평안과 치유 효과는 생각보다 크다. '상처의 달, 치유의 달'을 주제로 한 전시가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에서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김두석, 김재희, 하지혜, 한서형 작가를 초대했다. 올해 첫 번째 기획전으로 열리며 타인이 주는 상처 또는 스스로에게 주는 상처를 '달'이라는 매개를 통해 투영했다. 김두석 작가가 먹빛 자기를 배경으로 펼친 빈 나뭇가지는 보는 이에게 마음 환경을 아리게 한다. 덩그러

니 놓인 자기와 양상한 나뭇가지는 현대인들 또는 작가의 내면을 떠올리게 한다. 김재희 작가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구두'는 상처 받은 자아의 심상을 투영한 작품이다. 상처투성이인 자아가 무언가에 떠밀려 비명을 지르고 있는 듯한 모습이 담겨 있다. 김 작가는 "이번 전시는 '달'과 '치유'가 키워드라 할 수 있다"며 "뒤늦어진 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지만 달을 통해 치유되는 느낌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하지혜 작가의 'PULL MOON'은 갈대로 보이는, 역대로 보이는 메마른 풀을 초점화했다. 공중에 떠 있는 역새묵음을 '달'로 표상한 것 같은데, 그 달은 쓸쓸하면서도 침잠의 분위기를 발한다. 밝고 둥근 보름달과는 차이가 다른 사람들 내면에 저마다 깃든 '달'을 은유적으로 구현한 듯하다. 한서형 작가의 작품은 혼돈의 시끄러움 속에서 사유를 생각하게 한다. 그는 "바람은 씨앗을 나르고 땅에서는 무엇이든 솟아나고 새들이 목정을 높이는 계절,



김재희 작 '벼랑 끝에 서 있는 구두'

봄'이라며 "낮의 소란이 잦아드는 밤이면 달빛이, 보드라운 모성으로 세상을 비춘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운영기관 선정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김요성)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주최하는 '2024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 지역사업 운영기관 공모에 5년 연속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올해 사업선정규모는 3억9600만원이며 참여 예술인은 50명. 문화재단은 2020년부터 선정된 이후 4년 동안 총24팀, 236명의 예술인과 함께했다. 그동안 광주지역 기업·기관 등 이슈 등을 예술인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상생모형을 만들어 냈으며 예술인들에게는 활동비를 지급했다.

올해 사업은 2월 말 참여 기업·기관 모집공모를 시작으로 리더 예술인, 참여 예술인을 차례로 모집 할 예정이다. 참여대상은 광주시 소재 기업·기관(마을 등)과 광주 예술인이다. 예술인은 참여 신청서 최종 제출일 기준으로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해야 한다. 김요성 직무대행은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은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시민들과 공유하는 주요한 역점사업"이라며 "지역 예술인과 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Modern Construction' (MODERN) featuring services like building construction, remodeling, and interior design.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T. 062)531-3530, H. 010-9229-3530.